



더위 날리고 싶을 때... 시원·새콤한 '막국수'



순메밀비빔막국수

순메밀물막국수

당찬 맛집을 찾아서

<20> 애월읍 '애월리순메밀막국수'

담백한 육수... 구수·투박한 순메밀면
물·비빔·들기름 등 막국수 종류 다양
"100% 순메밀 본연 향과 맛 느껴 보길"

여름이다. 폭폭 찌는 날씨에 불쾌지수가 치솟고 장마철엔 기분까지 푹푹하다. 할일은 태산인데, 이미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기온은 내려갈 기미가 안보이는데 내 몸만 더 축축 쳐질때 허기를 달래줄 음식. '막' 만든 것 같지만 결코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 이야기다.

김정희(46)씨가 운영 중인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애월리순메밀막국수'는 '오직 메밀'로만 만든 막국수를 내놓는다는 배짱 있는 가게다.

김 대표에게 순메밀을 강조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순메밀 본연의 향, 그리고 '건강'이라고 했다. 그래서 당일 아침 제분한 메밀만 사용하고 썼던 반죽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전분, 면소다, 하다 못해 소금도 일절 첨가하지 않은 순메밀면"이라며 "육수·고명·반찬은 주인공인 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일 뿐, 100% 순메밀 본연의

느껴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순메밀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일단 배가 고프다. 막국수만 맛보긴 허전해 수육도 주문했다. 조금 기다리니 수육이 먼저 나왔다. 갓 삶은 수육은 부드럽고 고소해 그냥 먹어도 맛있었다. 맛있는 수육의 필수적인 조건인 '잡내 없이 부드럽게 삶기'의 정석.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수육으로 허기를 달래고 조금 기다리자 주인공이 도착했다. 드디어 막국수를 맛볼 차례. 순메밀 면임을 강조한 사장님의 '면부심'을 검증해 볼 시간. 하지만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기엔 이미 너무 굵주려 있었다. 비빔을 주문한 나는 다급하게 양념과 면을 마구 비벼 섞으려 했고 물막국수를 주문한 친구는 겨자와 식초를 넣으려 했다. 그러자 곁에 계시던 사장님이 극구 말린다. "양념 넣지 마시고 일단 국물하고 면 본연의 맛 먼저 봐 주세요." 살짝 머쓱하다. 육수를 한 숟갈 떠서 맛봤다. 스승하고 담백하다. 시큼한 맛인 여타 막국수와는 다른 맛이다. 그리고 면만 따로 먹어 본다. 구수하고 투박하다. 담백한데, 달콤하다. 면의 질감도 밀면처럼 쫄깃하지만 얇지만 그렇다고 쉽게 으스러지지도 않는 오묘한 질감이다.

막국수의 양은 생각보다 많았다. 사장님은 메밀의 특성상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끼니를 채우고도 금방 허기가 질 수 있어 면을 일부러 많이 담는다고 했다. 또 막국수엔 면, 육수, 오이, 무채, 편육 사태만 들어가 간소했다. 이 또한 순메밀면

본연의 맛을 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조리 비법이라고 사장님은 설명했다.

친구가 주문한 물막국수를 한참 뺏어 먹다, 내가 주문한 비빔막국수를 맛봤다. 따로 맛본 양념은 비빔양념 특유의 맵고 신 단맛이 아닌 가볍고 상큼한 단맛이었다. 김 대표는 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사과·배 등 과일로 단맛을 낸다고 했다. 입에 착 달라붙는 양념과 고소한 순메밀면의 조화. 거기에 무채, 편육 등 고명을 곁들여 먹으니 습기와 더위로 한껏 불쾌했던 기분이 녹는다. 김 대표는 "우리가가가 추구하는건 '건강'"이라고 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 한그릇 한그릇을 꼭 직접 만들어 정성을 담는다. 김 대표는 "매일 새로운 반죽을 만드는데 힘들지만, 우리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원한 여름 나기'라는 말처럼 우스운 말도 있을까. 올 여름은 또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단다. 다가올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기 위해선 잘 먹어야 한다. 올 여름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한 한끼로 순메밀 막국수를 권한다.

'애월리순메밀막국수'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5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가격은 순메밀물·비빔·들기름막국수 9000원, 소바·온면 9000원, 평메밀만두 5000원, 왕갈비탕 1만1000원, 수육 6000(소)·1만(대)원. 문의 064)799-458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영화관

꿈의 안부

올 상반기 개봉한 독립영화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봤다.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여성 영화 프로듀서 찬실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을 보고 꿈의 안부에 대해 생각했다. 할 줄 아는 것, 하고 싶은 것이 그저 영화 뿐이라서 결혼은 못해도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들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찬실이. 영화 속에서 그녀가 웃으며 흘린 눈물의 고백은 몽클했다. 한 때는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듣고 당신 없이는 현장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상찬도 들어봤는데 어느 순간 찬실이 손에 쥔 건 불확실한 미래와 버거운 지금 뿐이다.

그마저도 모래알처럼 주르륵 흘러가지도 않고 마음도 어디 하나 여유가 없는 불혹의 나이까지 어찌다 보니 '나에게도 부담스러운 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직 젊은데 뭘,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선부른 위로와 조언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작도 어려운데 다시 시작이라니, 여기저기서 얽히는 말이 너무 많아 찬실이는 먹은 것도 없이 체할 지경이다. 꿈만 꾸고 살아온 것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한심하게까지 느껴진다.

찬실이 뿐만이 아니다. 나도 참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래도 너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라는 부러운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건네지는 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발끈했다. 당신은 마치 나의 고민과 힘든 시간들을 그저 원더랜드에 사는 피터팬의 놀이 시간처럼 여기고 있구나 당신이 뭘 안다고 하는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일을 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다르다. 누군가의 어떤 말에 휘둘리는 게 얼마나 불필요한지 알아버린 지는 좀 됐고 무엇보다 꿈에 익숙해져 버렸다. 스리슬쩍 꿈은 일상 쪽으로 넘어와버렸고 덕분에 꿈 때문에 힘들고 버겁지는 않다. 그런데 이젠 꽤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왜 어느 순간 꿈이 성취나 완수 같은 낭만과는 멀리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걸까.

영화 '라라랜드'는 오랫동안 꿈을 꾸는 예술가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음악 영화다. 또한 각자의 꿈을 꾸는 상태로 서로를 꿈꾸게 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다. 뮤지션을 꿈꾸는 남자와 배우를 꿈꾸는 여자가 우연히 만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어느 순간 두 사람을 찾아온다. 둘 중 한명이 꿈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받는 상황이 온 것이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은 어찌할 수 없이 질투가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자 사랑은 당연한 듯 천천히 식어간다. 이별은 분명하고도 집요하게 둘의 주위를 맴돈다. 풍성한 추억들로도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온다. 웃자란 아이처럼 각자의 손을 잡고 있는 꿈의 형상은 더 이상 낭만적일 리가 없다.

우리는 꿈을 꾸다. 침대에 누워서 꾸는 꿈이기도 하고 깨어나는 순간 다시 시작되는 꿈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어떤 사람은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 어디에 꿈을 두던지 어디서 꿈을 꾸던지 우리는 꿈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답고 박찬 순간을 모르지 않는다.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욕망하고 실현시키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스스로의 꿈들을 꺼내어 천천히 닦아주면 어떨까.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빛이 바래지 않게 좋은 눈으로 꿈의 구슬을 바라봐 주면 어떨까.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은 104,140원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옆집 한달 전기요금은 17,690원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본질 주택용(거주)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